

## 여성에서 과민성 방광과 비만 간의 관련성

심병택, 배우경, 권혁태, 서혜숙, 허봉렬

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

**연구배경:** 비만은 복잡성 요실금의 위험 인자로 제시되어 왔다. 과민성 방광은 최근 개념이 임상적으로 정의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. 그리고 요실금 만큼이나 빈뇨, 절박뇨 등 과민성 방광의 증상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. 그러나 과민성 방광에 대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적다. 이 연구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과민성 방광과 비만과의 관련성을 보고자 한다.

**방법:** 2002년 5월 20일부터 7월19일 까지 2개월간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한 3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부요로 증상에 관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. 이들 중 설문지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한 309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. 대상 환자군을 과민성 방광 양성군과 그렇지 않은 음성군으로 나누어 나이, 체질량 지수 그리고 허리둘레를 카이제곱 검정 및 층화 분석하였다. 그리고 과민성 방광과 관련된 하부요로 증상 각각에 대해서도 증상이 있는 양성군과 그렇지 않은 음성군으로 나누어 연령군에 따른 층화 분석을 시행하였다.

**결과:**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2.2세였고 그 중 빈뇨(주간빈뇨 또는 야뇨)와 절박뇨가 모두 있는 과민성 방광 양성군이 186명(60.2%)이었다. 양성군과 음성군 간에 연령 별로 통계적 유의성이 보였다( $P < 0.041$ ). 연령으로 층화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자는 45~52세 군의 제왕절개술( $P = 0.001$ ), 45세 미만 군의 폐경( $P = 0.043$ ), 45~52세 군의 스트레스( $P = 0.030$ )였다. 통계적으로 경향만 보인 인자는 59세 이상 군의 체질량 지수(body mass index,  $P = 0.070$ )로 선형대 선형 결합(Linear by linear association)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( $P = 0.025$ ). 허리둘레는 두 군 사이에 모든 연령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( $P > 0.05$ ). 각각의 하부요로 증상에 대해서도 증상 양성군과 음성군 사이에 연령 별 층화 분석을 시행하였다. 빈뇨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자는 59세 이상 군의 폐경이었다( $P = 0.034$ ). 야뇨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자는 59세 이상 군의 분만수( $P = 0.044$ ), 45세 미만 군( $P = 0.024$ )과 59세 이상 군( $P = 0.040$ )의 체질량지수였다. 야뇨에 대해 폐경은 연령 별 층화 분석하지 않았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( $P = 0.008$ ). 절박뇨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자는 45세~52세 군의 제왕절개술( $P = 0.003$ ), 59세 이상 군의 허리둘레( $P = 0.034$ ), 59세 이상 군의 체질량지수( $P = 0.027$ )였다. 선형대 선형 결합 경향분석에서만 유의한 인자는 45세 미만 군( $P = 0.043$ )과 59세 이상 군( $P = 0.024$ )의 스트레스였다. 절박요실금은 선형대 선형 결합 경향 분석에서만 유의한 인자로 59세 이상 군의 스트레스가 있었다( $P = 0.036$ ).

**결론:** 여성에서 과민성 방광과 관련있는 인자는 제왕절개술, 폐경, 체질량지수, 스트레스와 연령으로 연구되었다. 빈뇨(주간),야뇨, 절박뇨, 절박요실금 등 각각의 하부요로 증상도 분만수, 제왕절개술, 폐경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스트레스, 연령과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.

**중심단어:** 과민성 방광, 빈뇨, 야뇨, 절박뇨, 절박요실금, 비만, 체질량 지수, 허리둘레